

## 〈통합연구〉를 창간하면서

그동안 국내 기독교 출판계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하여 수없이 많은 잡지들을 출간하였지만, 전문 학술지는 신학대학에서 간행하는 신학 관련 학술지들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통합연구〉를 창간하려는 것은 우리의 무식함이 더이상 "기독교적"이란 말로 은폐되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자책감과 황폐화된 기독교지성 세계에 대한 일말의 소명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8월 제1호 월보〈기독교대학〉의 창간사에서 우리는 4면으로 시작된 초라한 월보이지만 언젠가는 월보로부터 학술잡지가 발전적으로 분화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그후 3년 3개월 동안 월보가 12면으로 증면되고 발행부수도 크게 늘어나면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문적인 학술잡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물론 그동안〈기독교대학〉이 월보로서만 아니라 어느 정도 학술잡지의 기능까지 담당했던 것은 사실이나 부족한 지면, 예산, 필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 기능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1987년 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학술지 창간을 위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시작하였다. 창간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로서 주로 논의가 된것은 필진, 예산, 구독자 확보, 신학적 입장, 잡지의 이름 등이었다.

이중 잡지의 이름은 가장 오랫동안 열띤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학술지로서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구태의연한 낱새가 풍기지만 가능하면 영어 이름에는 Journal 이런 말이 들어가게 하자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였다(아마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공계 전공자들이 많았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주로 검토가 된 이름은 "학제연구지(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기독교학문지(The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통합연구지(The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등이었다.

각각의 이름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지적되었는데 "학제연구지"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일반 학문 분야와 대등한 입장의 한 학문 분야

(a discipline)로 볼 수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독교학문지"에 대해서는 학술지 내용이 기독교적이면 필텐데 구태어 "기독교"이란 말을 사용하므로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는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통합연구지"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문을 연구한다는 의미보다 기독교 신앙과 학문을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한다는 오해, 즉 Aquinas적 통합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지 모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 세가지 이름 중 "통합연구지"에 가까운 "통합연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통합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의 의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Aquinas적 통합은 흔히 "synthesis"로 표현하므로 "integration"과는 영어 표현에서 어느 정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통합연구지"보다 "통합연구"로 "지"를 뺀 것은 다소나마 딱딱함과 권위주의적 냄새를 줄이고 부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통합연구"의 영어 약자는 글짓기에 능한 J교수의 제안에 따라 "JOINS"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다음에는 〈통합연구〉를 창간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몇가지 요약해 본다.

첫째, 〈통합연구〉를 통해 신학대학 뿐 아니라 일반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기독교 학자들이 직업적인 일의 일부로서 자기의 연구분야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조망하려는 시도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16, 17세기의 근대과학이 출현한 후 18세기 계몽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회는 적어도 학문연구에 있어서는 세속세계에 주도권을 넘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막시즘, 진화론, 재국주의 등의 대두나 20세기의 극단적인 자연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등의 대두는 지성세계의 세속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사실 17세기 갈릴레이 재판 이래 오늘날까지 기독교회는 세속지성에 대한 콤플렉스 내지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속지성은 기독교에 대한 일종의 알레르기질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전통은 뿌리가 깊어서 기독교내에는 반지성주의를 경건으로 생각하고 피조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궁구하는 학문적 활동을 천국이나 구원, 면류관과 무관한, 불에 타 없어질 회랍전통의 소산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와 같은 반지성적, 이원론적 분위기는 무속, 기복적인 전통종교의 신앙을 배경으로 고난과 박해의 역사 속에서 내세 지향적 성향을 띄며 성장해 온 한국 기독교계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인 배경으로 볼 때 독자는 <통합연구>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돈키호테적인 만용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돈키호테로서 <통합연구>가 세속화된 지성세계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성경적이고 올바른 경건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선봉의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둘째, <통합연구>를 통해 기독교와 일반 학문 세계 간의 건전한 대화가 이루어져 학문의 지나친 분화(fragmentation)가 가져온 학문의 자폐증, 재국주의적 특성이 깨어지기를 기대한다.

현대 지성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문과 학문 간의 대화의 부재이다. 자기가 연구하는 한 분야에 갇혀서 자기의 연구가 다른 사람의 연구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 독선적이고 경직된 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며 따라서 공평과 합리를 추구한다는 학문이 그 반대 극단인 재국주의적 특성을 띄게 된다. 독자는 학문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갈수록 학문의 분야가 세분되고 폐쇄적이 되는 것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체념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학문의 자폐증적 증세의 실재적인 이유는 학문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종적으로, 횡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통합적인 세계관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하나님의 피조세계라는 직구조속에서 각 학문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찾고 개별 학문의 좌표를 설정하며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학문의 의의, 내용, 목적, 방법론 등을 논의하려는 <통합연구>의 시도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통합연구>는 기독교학자들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징검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공동체란 반드시 학교나 연구소 등과 같이 한곳에 모여 한 건물과 조직 속에서 연구하는 유형 공동체만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일반 학회와 같이 각자의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동연구, 정보교환, 학술회의, 공동저술 등의 학술활동을 하는 무형 공동체도 훌륭한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국내에 이미 크고 작은 기독교학자들의 단체들이 몇몇 있지만 이들은 대개 학문적인 교류보다는 선교나 선교 등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학문 공동체라고 부르기 어렵다. <통합연구>는 학문을 업으로 하여 대부

분의 시간을 보내는 기독교학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적인 일을 통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지상 매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인 교제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기독교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같이 유형적인 기독교 학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통합연구>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의 수고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통합연구>발간은 신학대학보다 일반대학이나 연구소에 재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시도되는 학술지이므로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 자비량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내외의 많은 기독교학자들이 저자, 독자로서, 또한 편집, 번역, 심사위원 등으로서 헌신적으로 참여해 줄 때 수준 있는 학술지의 발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화려한 월간 잡지의 흥수시대에 겨우 일년에 3회 발간하는 얇은 학술지이지만 이것이 기쁨제가 되어 기독교적 학문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미래에는 영문판 잡지는 물론 각 분야별로도 수준 높은 잡지들이 출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인 논의가 기초가 될 때 기독교인은 시날평지에 세워진 바벨탑과 같은 현대 문화의 추종자가 아닌 명실공히 변혁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통합연구>를 창간하는 것과 관련하여 3,000여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와 이름이 가드사람 골리앗에게 모욕받은 것을 분히 여겨 분연히 일어난 다윗의 무용을 생각해 본다. 다윗은 골리앗이 여호와와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이 할례 없는 불레셋 사람이 누구판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분개하였다. 그리고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외치며 골리앗을 향해 도전하여 승리하였다.

여섯 규빗 한뼘의 신장에 낫투구, 어린갑을 착용하고 배틀채 같은 낫단창을 맨 현대판 골리앗 세속지성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며 모욕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의분과 용기,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실력을 기를 때 <통합연구>는 세속지성을 공격하는 훌륭한 물맷돌이 될 것이다. <통합연구>가 훌륭한 물맷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때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질 것이다.

1988. 12.

양 승 훈 (발행팀 편집인)